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겸손과 기도로 얻는 축복

(약 4:1-12)

The Blessings Gained by Humility and Prayer

(James 4:1-12)

야고보 사도는 모든 싸움이 정욕, 즉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약 4:1).

싸움의 대부분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욕심을 내거나 시기하고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기도와 겸손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ames the Apostle says that all fights and quarrels are the result of greed by bodily need.

“What causes fights and quarrels among you?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s within you?” (James 4:1)

Most fights are to achieve someone's own happiness. But the happiness cannot be gained by greed, jealousy, and fighting.

James the Apostle suggests us the very important two ways of humility and prayer in order to live our blessed life.

1. 기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약 4:2).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 4:3).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기도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응답 받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2. 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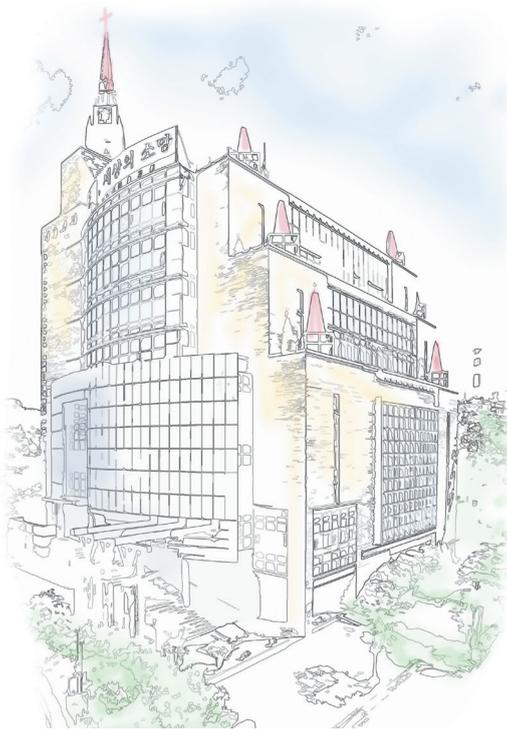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반면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믿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저급함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비난해야 자신의 우월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우월주의와 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욕심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 오직 겸손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Prayer

“You want something but don't get it. You kill and covet, but you cannot have what you want. You quarrel and fight.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James 4:2).

One of the greatest graces that we enjoy is that we can pray. The writer of Hebrews says,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 4:16). Approaching God's throne of Grace means prayer. We can receive God's compassion. At times, we also get help. Therefore, we must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bold and joyful mind.

Though you prayed and you did not get any answer, that is why you ask with wrong motives that you may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 (James 4:3). We may be soaked in the very egoistic prayer. By seeking first Christ's kingdom and getting a response, you must be the people of prayer.

2. Humility

“But he gives us more grace. That is why Scripture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James 4:6).

In any case, God turns away arrogant people. While, he boosts humble people and gives grace to them. Jam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umility with the importance of prayer.

Arrogance is the root of sins. All sins start from arrogance. The arrogant people believe that they are righteous by themselves, and look down on other people. Why do they have such traits? Because by pointing out the substandard of others, showing, and blaming, they can reveal their own superiority. Therefore, Jesus, through his human life, fought the arrogance and superiority of such Pharisees.

My beloved Christians,

What is the way for us to be happy? That is prayer. If you pray, you can deeply communicate with God, and get all what we want and share with one another.

By remembering that we never get what we want by greed, and realizing that we can get it by prayer,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Christians' winning with only humili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신천지(이단) 추수꾼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난 주일 신천지(이단) 추수꾼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서 “부패한 한기총 이단 교리와 신천지 정통 교리 비교”라는 전단지들을 배포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전단지들을 받지도 말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2016 하계 2차 국내전도

7월 27일(수)~30일(토), 오송제일교회

2016년 전도위원회(위원장 최광성 장로) 제2차 하계 국내전도가 7월 27일(수)부터 30일(토)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제일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내전도 사역은 청년부를 중심으로 진행되

는 어린이사역과 청년부와 70인 전도대가 함께 하는 전도사역으로 진행된다. 청년부는 7월 27일(수) 11시에 출발하며 70인 전도대는 7월 28일(목) 출발한다.

이중은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 20:21)

바울 사도의 서신은 대략 교리적인 설명을 한 다음 실천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롬 12:1 상). 여기 ‘그러므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은혜, 선택, 침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된다고 했다.

1. 무엇이 이 세대의 특징인가?

기독교인은 세속주의(Secularism)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세속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속주의는 모든 생물, 인간의 가치, 인간의 활동을 현재의 빛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기독교인은 인본주의(Humanism)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다니엘 4:30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느부갓네살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상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Relativism)와 물질주의(Materialism)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야 한다.

2. 죽으면 살리라

모순원리(Paradoxical truth), 역설적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있다. 모순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기독교 진리에도 역설적 진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가당착도 오류도 아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고 진리이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살려낸 죽어라’, ‘죽어야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다.

사도 바울은 롬 12:1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중등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중등부(지도 : 이진광 전도사, 부장 : 김영희 집사)는 오늘 주일 찬양예배 시에 헌신예배를 드린다.

유치부 2부 교사모집

유치부 2부(오전11시~오후1시)에서 봉사할 교사를 찾고 있다. 티 없이 맑고 예쁜 유치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서울교회 성도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특별히 대학생 및 청년부원들의 봉사를 기다린다. 문의 유치부 부장 이성우 집사 010-6780-8501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금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일날 주차하는 성도들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제물로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 바치면 그것을 제사장이 죽여 제사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죽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한다.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된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날마다 부인함으로 새로 산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은 반복될 수 없다. 단번에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감사제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좀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희생하려는 자녀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신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이다.

(다음 주 계속)

이단 바로 압시다!

신천지, 모든 성도 한마음으로 강력 대처!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 신천지 교도 50여 명이 한티공원에 와서 버젓이 서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신천지 정통 교리와 한기총의 이단 교리를 비교해 보라며 사진(2면 참조)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후로 다시는 신천지 교도들이 교회 앞에서 포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

신천지는 '무료성경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평신도신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여 가능한 한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기고 정통교회를 미혹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음방'이라는 과정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신학원에 데리고 가기 전까지 훈련시키는 또 다른 위장 단체이다.

추수꾼이란 일반 교회에 침투해 교회의 인재들을 빼돌리는 '작업반'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의 전도 방법에는 단기적 추수밭 전도라고 해서 한 명씩 전도해서 데리고 나가는 방법과 1~2년에 걸쳐 교회의 신임을 얻은 후에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장기적 추수밭 전도가 있다.

신천지 추수꾼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설문조사를 통해** :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연락처를 쉽게 받아 낼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 **관계를 통해** : 친척, 선후배 관계나 인터넷 메일 및 친구 찾거나 동창 모임을 통해 접근하기도

한다.

- **아르바이트를 통해** : 강의를 듣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여 시간당 만 원 등의 아르바이트비를 제공하며 신천지의 교리교육에 참여, 필기 후 의뢰자에게 재강의하게 한다.

- **교회에 처음 등록할 때** :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찾고 있다." "이단들이 많아서 함부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교회에 등록한 이후** :
 - (1) 모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이나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봉사하고자 한다.
 - (3)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교회에서 신학공부를 했거나 성경공부 및 신앙훈련을 받은 사실을 알려서 더 중심적인 자리를 선점하기도 한다.
 - (4) 특히 신천지로 끌어들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성경공부 잘 하는 곳이 있으니 한 번 가보자."
 "꼭 소개해 주고 싶은 선교사님이 계신다."
 "선교사님과 성경공부 해 보자."
 "당신과 관련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00을 하라는 것 같다."
 "꿈에 당신이 나타났는데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이 있다" 등등이다.

성도 여러분의 귀중한 제보가 내 영혼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현재 우리교회의 성도나 자신의 가족 중 신천지나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신고바란다.

의심 사례

1. 본교회의 목회자가 아닌 외부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와의 신앙상담을 받고 권유하거나 또는 외부모임의 참석을 권유한 사람
2. 근래에 접근하여 ① 당회와 교역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 ② 기존체제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며 교회의 헌 체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평불만, ③ 성도간의 이간질, ④ 외부의 성경공부나 훈련에 대한 참여 권유, ⑤ 가나안 정복, 씨뿌리기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

신천지는 기성 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다시 짰다고 한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권유하는 대신, 관계를 형성하고, 포교할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설득한다고 한다.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소속 구구목사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신천지가 서울교회 앞에 나타날 경우 강력 대처하기 바란다. (편집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5길 11 이곳은 21년 이 된 대진중앙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고 사역이 점점 힘들어질 때쯤 서울교회에서 2015년 3월 14일에 오정수 장로님과 최광성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시골교회 중에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찾고 있던 중 두 분 장로님들께서 우리교회의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교회가 자립하여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물질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2일에서부터 17일까지는 선교봉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2015년 여름은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선교봉사의 사역은 대진중앙교회에 있어 역사적인 날 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에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사역은 우리교회와 성도들과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이렇게 큰 선교봉사의 사역을 우리교회와 이 지역을 선정하고 섬겨주신 서울교회와 국내선교부와 이번 여름 사역에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 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이라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015년 여름 서울교회의 전도 봉사를 통해 8명의 새 신자가 새롭게 등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도 봉사를 마치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새 신자 4명 오셨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2명, 이곳에 이사 오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하신 2명, 교회학교 2명 이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찾아보고 돌보면 더 많이 결신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교회 성도님들도 즐겁고, 지역에 주민들도

즐거워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정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교회는 비록 작지만 지역을 위해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서울교회와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은 우리교회와 우리 가정에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서울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기쁘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은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농촌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었고 해도, 출생이 저하되어 농촌이 무너진다 해도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농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명을 위해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대진 땅 까지 오셔서 2016년 여름을 복음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7월 18일
대진중앙교회 섬김이 김춘기, 김길숙 올림

2016 여름수련회 초대 - 중등부

하나님의 그루터기



김백겸
(중등부 회장)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7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수련회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이사야 6:13).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베여도 밑둥이 남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게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광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와 함께 하는

연합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쉽게 지칩니다. 겉으로는 어른과 비교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친구들도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풍파속에서도 견주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 중등부 친구들! 시험도 끝났으니 이제 수련회에 같이 가자. 신나는 물놀이와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수련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에 친구들 모두가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016 여름수련회 초대 - 고등부



마승완
(고등부 회장)

안녕하세요. 2016 서울교회 고등부 마승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했던 1학기가 지나고 이제 우리 고등부는 여름방학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방학동안 자신이 부족했던 공부, 독서, 운동 등을 하며 바쁘게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만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등부는 "내일을 향한 지혜"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 수련회는 처음으로 고등부와

중등부가 연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많은 교류가 없었는데, 그 이후 수련회에서도 같이 목사님의 특강을 듣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중등부와 고등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합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를 바탕으로 이번 수련회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좋았던 점을 더욱 부각시켜 더욱 발전된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좋은 수련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많은 선생님, 찬양팀 학생들, 임원단이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후배님들, 친구분들, 선배님들 시간이 부족한 걸 알지만 기도로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월25일(월) 전주대학교 신학대학 전총장 초청 신학특강을 한다. 30일(토)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대표자모임을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 루디아 · 도르가 전도회(7. 24) 이삭선교회 (7. 31)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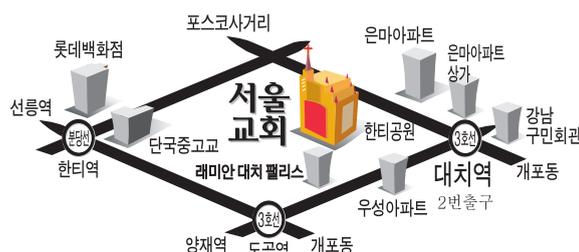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계속되는 중등부, 고등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우리교회의 다음세대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 7월 27일(수)부터 30일(토)까지 계속되는 2016년 전도위원회 제2차 하계 국내전도가 충북 청주시 오송제일교회를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